

오피니언

11

사설

무전공 제도 수강신청 고도화 계기 삼아야

입학생의 10%를 차지하는 자율·자유전공학부가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본격 도입된다. 학교는 이를 위해 '교육혁신연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학사 및 행정체계, 학생지원을 중심으로 무전공 제도의 윤곽을 다듬기 위해서다.

학교는 무전공으로 입학하는 신입생을 위해 여러 제도를 마련했다. PBL(Project Based Learning) 기반 학생설계 전공 도입 검토가 대표적이다. 또한 1학년 학생의 전공 탐색을 위한 교과·비교과 차원의 지원 대책, 자율·자유전공학부 운영에 필요한 전용 공간 확보도 추진하는 등 행정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학생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역시 미래혁신단 등 유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렇듯 무전공 제도 안착을 위한 준비가 학생 '교육'에 초점을 맞춘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학생 지원이 '전공 탐색'에 초점이 맞춰

진 것도 무전공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무전공 제도 도입을 계기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우리 학교 수강신청 제도 개편 가능성이다. 교무처 관계자 또한 새롭게 바뀔 수강신청 시스템에 "무전공에만 적용하는 것은 의미 없다"며 수강신청 시스템 개편이 전체 학생 대상으로 확장될 것임을 암시했다. 수강신청 제도 특성상 특정 학생에게만 다른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기에, 모든 학생에게도 학습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사전에 원하는 과목을 정해 수강신청 시 조금 빠르게 강의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희망 과목담기'가 있다. 하지만 같은 과목을 여러 학생이 담았을 경우, 실제로는 마우스 클릭 속도가 수업권을 좌우한다. 또한 현재 운용 중인 '취소신청지연제도'는 수강 과목을 사고파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여

“

수강신청은 수업권과 직결된 문제다. 수강신청 문제가 항상 대두되던 시기에 관련 논의가 등장했으면 좋았겠지만, 무전공 제도 도입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

전히 수강신청 기간 커뮤니티에는 과목을 사고파는 게시글이 심심찮게 보인다.

학교는 무전공 제도 도입에 맞춰 수강신청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포인트제', '우선배정제' 등의 방식을 고려 중이다. 이중 포인트제는 학생에게 일정량의 포인트를 배분하고 원하는 과목을 희망하는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배분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우수 사례로 평가받는 연세대의 '마일리지 선택제'와 비슷한 형태다.

마일리지 선택제는 학생에게 일정량의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학생은 원하는 과목을 희망하는 정도에 따라 과목별로 마일리지를 배분해 선택할 수 있다. 강의에 더욱 진정성을 갖고 임하는 학생에게 수업권을 우선 제공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보인다. 선착순에 의해 수강 과목이 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스레 강의 매매 또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제도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디 다양한 가능성과 검토를 통해 최대한 많은 구성원이 만족할 만한 제도를 확립하길 바란다.

세시봉

설국버스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새 학기가 시작됐음에도 양 캠퍼스 간 셔틀버스(설국버스) 운행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서울캠과 국제캠을 오가는 경로가 정해지지 않아 기사마다 다른 경로를 통해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오후 4시 40분에 서울캠 온실 앞에서 출발한 설국버스가 오후 7시 정각에 국제캠 사색의 광장에 들어섰다. 퇴근 시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정도의 지체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시간 설국버스 탑승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는 심각했다. 그들의 일지된 증언에 따르면, 버스는 출발한 지 1시간 반이 흘렀을 무렵 여전히 한강 이북에 머물러 있었고, 서울 시내를 한참을 맴돌다 6시 30분이 돼서야 분당에 진입했다. 이후 고속도로를 타고 30분 만에 국제캠에 도착한 것이다.

기자 역시 설국버스를 이용하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시간 동안 좁은 버스 안에 갇혀있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당시 버스는 양 캠퍼스를 오가는 경로라고 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압구정 명품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이곳저곳에서 한숨 소리가 나왔다. 급기야 한 탑승객은 큰 소리로 "저 여기서 내릴게요"라고 말했다. 안절부절못하며 운전하는 기사님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도착시간에 대한 걱정은 이미 포기한 상태. '목적지까지 안전 운행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다시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설국버스 이용을 주저하게 됐다.

지난 11일 탑승한 학생들은 한목소리로 운행 시간이 들쭉날쭉함을 지적했다. 또한 운행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날마다 다른 경로와 다른 시각에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학생들의 주장이 이해가 갔다.

설국버스는 단순히 두 장소를 오가는 교통수단이 아니다. 서울캠 등용문과 국제캠 네오르네상스문을 잇는 다리인 셈이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양 캠퍼스 구성원은 '경희'라는 하나의 가치를 공유한다. 매 학기 발생하는 사건을 단순 해프닝으로 보고 넘길 수 없다. 학교가 관심을 갖고 개선해가길 바란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온전한 트로이카를 위해

홈구장 없는 트로이카

최연우 기자
chyuw419@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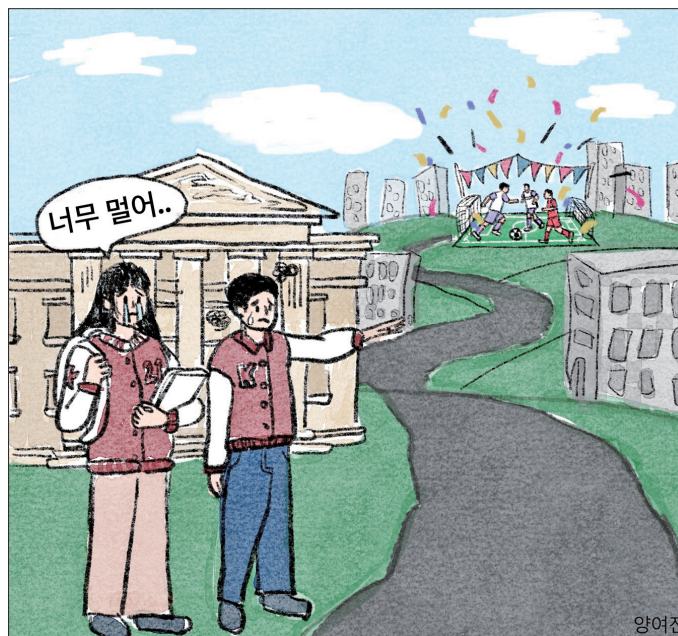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의 제4회 트로이카(역동전)가 지난 12일 막을 내렸다. 미디어팀으로서 실감 나는 현장을 영상에 담기 위해 매일 현장을 찾았지만, 발걸음은 늘 우리 학교 캠퍼스를 벗어났다. 모든 경기가 학교 밖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축구와 계주 경기는 시립대 대운동장에서, 농구 경기는 한국외대 오바마홀에서 열렸다.

트로이카가 열리는 기간 동안 우리 학교는 참 조용했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 누적 오프라인 관중 3000명을 목표로 잡았다.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굿즈 제작이라는 노력도 기울였지만 트로이카가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청운관 앞 포토부스밖에 없었다. 주최 측은 "우리 학교 스포츠 시설이 타 학교에 비해 부족하고, 이것이 선수들의 안전 문제와도 연관이 있

어 우리 학교에서는 경기가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립대와 한국외대에 가보니 우리 학교 시설이 연합 행사를 개최하기에 열악했음을 바로 체감할 수 있었다. 잔디 없는 대운동장, 관중석도 몇 없는 네오르네상스관 농구장, 코트가 한 면뿐인 테니스장 등 학교 간 연합 체육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아쉬움으로 끝날 순 없다. 우리 학교에서 트로이카 경기를 진행하지 못하는 현 상황은 학생이 활동적이고 다채로운 대학 생활을 보장받지 못함을 증명하는 단서다. 체육 행사에 참가하는 학교가 교내 체육 시설 미비로 경기를 개최하지 못한다는 것도 역설적인 상황이다. 함께 모여 타 대학 학생들과 어울리고, 학교에 소속감을 느끼며 응원하는 것이 체육 대항전의 묘미다. 시설 부족으로 그 분위기가 학교에서 느끼지 못한다면, 적어도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행사의 의미를 전할 방법이 없다. 학교 측이 관련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추후 대회의 열기가 우리 학교에 가득 채워지길 기대한다.



만평 체육 시설 미비로 트로이카의 모든 경기가 타 대학에서 열렸다.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조병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아이피디